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8-01호 2008년 1월 18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금요일 7:30 PM 반모임: 매월 마지막 일요일 12:00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 형제회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이 형제 자매들은 각자 재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 회칙 제2조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프란치스코 가족 안에서의 독자적인 위치와 그 속성 및 성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회원의 신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신원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이 방편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재속의 신분으로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서약, 회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는 까닭은 자기의 세속적 신분에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모든 이들의 성화 성소의 핵심인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에 따르면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무엇보다도 전체 그리스도교인들의 완덕의 학교이며 참된 프란치스코 정신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유일한 목적은 회원들의 성화에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안에서 성직계에 속하는 사람이나 성직계의 사목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성화의 성소를 받는 것이다.



곧 여러 생활 양식과 여러 직책의 모든 사람들이 닦고 있는 성덕은 동일한 것이다. 교회의 이 거룩함은 성령이 신도들 안에서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로써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각기 사랑의 완덕을 지향하며 남들을 감화시키는 각 사람의 생활 형태로써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흔히 복음적 권유라고 불리는 덕행을 실천하는 데에서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과 계급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실현하도록 불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성화 성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완덕의 끈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모든 성화 수단을 지배하고 힘있게 하며 목적을 달성케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다."(교회 39-42)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

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은 아들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약속된 것을 갈망합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세례 축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례주년으로는 이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된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의 공생황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이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며 활동을 시작하신다.



“물아 고맙다”

주님의 세례축일을 지내고는 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언젠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 양역관/나무심는사람)라는 책을 보곤 물이 얼마나 소중하며 물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동한 적이 있다. 모두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물 연구자인 저자는 우리 인간은 70%가 물로 구성된 존재이며 따라서 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이 인간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물의 결정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물은 6각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 자연수는 6각을 띄는데, 수돗물은 그 결정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물도 소리와 음악을 알아 듣는다. 바하와 모짜르트, 베토벤 등의 음악을 들려주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이고 반향과 욕설이 남무하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면 그 결정이 이그러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타나고 물에게 욕설 을 퍼부우면 처참한 모습이 된다. 물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늘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의식을 나누면 물은 그것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 주고 우리가 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의식에 사로 잡히거나 무관심에 사로잡히면 물은 나쁜 기억 들을 자신에게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수기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아니라 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물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H₂O라는 물은 감사(2) + 사랑(1)로 표현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쳐 준다. 세례물이 가장 좋아한 말, 즉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드러내 준 말은 감사와 사랑이란 말이었다고 한다.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늘 감사하면서 살고 더욱 더 사랑하면서 살고...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매사에 더욱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이를 더욱 더 사랑해야 함을 생각한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수사님 한분은 냉수 한컵을 드시면서도 천천히 성호를 그으면서 깊이 감사를 드리시고 음복하시곤 하셨다. 그래 이런 감사를 드리면 물도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 책의 저자가 말하듯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반짝이지 않겠는가?

그 물이 내 몸속에 영양소를 나르면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고 진정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는가?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의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는지 오늘은 한번 세어 보자. 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참다운 세례받은 이로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누게 된다. 반대로 하루를 살면서 악담이나 저주, 욕설, 비방, 헐담, 시기, 질투, 탐욕 등을 부린만큼 나는 세상에 악을 퍼트리게 되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망가뜨리게 됨을 의식하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물아, 고맙다. 해야, 고맙다. 공기야, 고맙다. 모든 삼라만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 오상선 신부, 작은 형제회 관구장

행복을 말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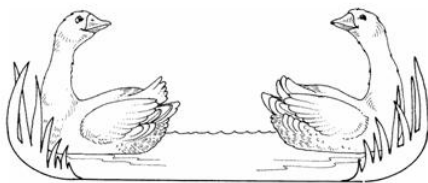
오늘 하루는 내 생애의 축소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종일 행복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
그게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언제나 행복과 희망만을 말하며
하얗게 웃는 사람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해피 바이러스를
맘껏 퍼주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예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happy virus 하루 중에서 -



나는 할 수 있어

1.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과 복됨을 확인해 보자.
세상에 생명처럼 소중하고 복된 것은 없다.
2.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기적을 낳는다.
3. 가진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자.
무엇이든 머물러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

-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 원리'에서

내일을 심은 도토리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 지방에는
프랑스 의회에서 '천혜의 숲'이라
이름 붙인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있다.
천혜의 숲이라 불리지만 원래부터
비옥했던 울창한 숲은 아니었다. 이 숲의
역사는 자연을 사랑한 어느 양치기 노인의
'희망 도토리'에서 시작됐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8년 전, 프로방스
지방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엘제아르 부피에는 30여 마리의 양을
돌보며 매일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땅에 심었다.

남들이 뭐 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며 핀잔을 줘도,
식구들이 하나 둘 먼저 세상을 떠나가도 그는
도토리 심기를 멈추지 않았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죽는 순간까지 심은 도토리의 수는
10만 개가 넘을 정도였다.

그는 비록 아름답게 성장한 거대한 나무숲을
보지 못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이곳을 다시 찾은
여행객들은 그가 심어 놓은 한 알 한 알의
도토리가 만들어 낸 기적의 숲을 볼 수 있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도토리를 심었지만, 그가
심은 것은 '내일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의
감동적인 희망 메시지는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은 프레데릭 백 감독에 의해
1987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설과 동일한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은 같은 해 칸영화제 초대작으로
상영되었고, 프레데릭 백 감독에게 아카데미상을
받게 한 기념비적인 영화가 되었다.

- '행복한 동행'중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2008년부터 합동 반모임 시간은 마지막 일요일 12시로 바뀌었습니다.

1월: 27일. 한데레사 자매택. 반모임점 신년 모임. 각자 음식 1가지씩 준비해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2월: 24일. 김아다가 자매택.
5313 Tractor Lane, Fairfax, VA 22030
703-818-9509

** 자기집에서 반모임을 주최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마리아 자매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03-250-1658

✦ 본당 수녀님 오시는 준비를 위하여 우리 형제회원 모두 작은 정성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20씩 조로사 자매께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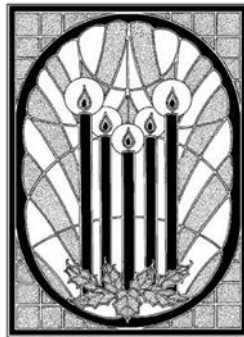
✦ 대림피정하고 남은 \$80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생활하시다 프란치스칸 수사님이 되어 봉사하고 계시는 볼리비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도네이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 한국으로 가시는 김병두 신부님을 위해 ...

1월 월례회 시간표

7:00 PM - 다과/친교
7:30 PM - 신부님 강론
8:00 PM - 양성
9:30 PM - 월례회/미사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2번 태양의 찬가
봉헌: 5번 작은꽃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마침: 52번 주님 부르면

제1독서: 조로사
제2독서: 강말가리다
미사해설: 조마리아

간식 담당

1월: 강말가리다, 강요한, 강스텔라
2월: 이아모스, 김글라라, 허세라피나



본명축일: 1월28일 곽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강동훈 703-585-2700 johnkang52@hanmail.net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강옥희 703-440-8010 margarita222@hanmail.net
영적보조: 조기영 OFM choandl@hanmail.net